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MarketWatch: 3월 미 신축 주택 판매 반등
- CNBC: 최근 수주간 미 신규실업청구 건수 '아주' 똑같아... 21만2천건

[미국 금융]

- CNBC: 미 소비자들, 8억8천만불 규모의 '인터넷 감축법' 주택 에너지 환급금 받는다
- Bloomberg: 골드만삭스, "미 증시 하락 끝나지 않았다"
- WSJ: 캐시 우드의 인기 ARK 펀드 빠르게 감소

[에너지]

- Bloomberg: 오일 시장에서 '중동 리스크' 너무 빠르게 사라진다

[전기차]

- CNN Business: 국제에너지기구, "전기차 혁명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 WSJ: AI 개발자들, 아동 성착취물 막기 위한 안전 조치에 동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GM, 2024년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1분기 판매 호조
- Bloomberg: PepsiCo, 미국 매출 감소에도 해외 성장에 힘입어 실적 향상
- CNBC: JetBlue, 2024년 매출 전망 하향 조정 후 주가 13% 하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MarketWatch: Sales of new homes rebound in March

3월 미 신축 주택 판매 반등

- 신축된 주택 판매가 3월에 상승했는데 지난 2022년 12월 이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3월에 8.8% 오른 연율 69만3천채를 기록했다. 이는 2월의 조정치 63만7천채보다 높은 수치라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
- 한편 3월 신축 주택의 중간값은 지난 2월 40만5백불에서 43만7백불을 기록했다.

MarketWatch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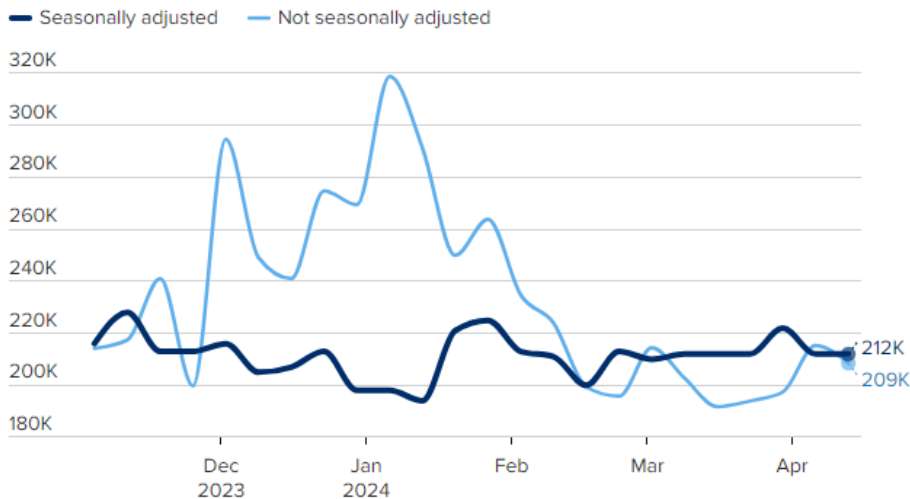
CNBC: Something strange has been happening with jobless claims numbers lately

최근 수주간 미 신규실업청구 건수 '아주' 똑같아... 21만2천건

- 지난 6주 중에 5주 동안 미 신규실업청구건수가 21만2천건수로 똑같아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똑같은 수치가 지난 3월 중순 이래 발표됐다. 지난 6주 중에 지난 3월 30일 해당 주만 22만2천건으로 약간 변동된 수치를 보였다.
- 신규실업청구수당은 주별 프로그램이며 날씨, 계절, 휴가, 경제적인 변수 등으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 5주 동안 1천건의 건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다.
- 수치를 발표하는 연방 노동부 대변인은 숫자가 똑같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데이터에서 계절조정이 반영된 지속적인 일자리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nitial claims for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U.S.

November 2023–April 2024



Note: Weekly totals ending Saturday

Source: U.S. Department of Labor via FRED

Data as of April 18, 2024



CNBC 기사

[미국 금융]

CNBC: Consumers may soon get access to a share of \$8.8 billion in Inflation Reduction Act home energy rebates

미 소비자들, 8억8천만불 규모의 '인터넷 감축법' 주택 에너지 환급금 받는다

- 연방 에너지국은 주택 에너지 환급 프로그램을 위한 신청을 승인했다.
- 이는 인플레이 감축법에 따라 주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비자를 위해 총 88억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소비자는 가구당 최대 1만4천 이상 받을 수도 있으며 빠르면 향후 수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 혜택 대상은 전기 열펌프, 단열재, 전기 패널과 에너지 스타 등급 가전제품 설치 등을 할 경우 비용을 상쇄해 주는 것이다.

CNBC 기사

Bloomberg: Goldman's Rubner Says the Pullback in US Stocks Is Not Over Yet

골드만삭스, “미 증시 하락 끝나지 않았다”

- 골드만삭스의 기술 분석 전문가인 Scott Rubner는 주식 시장의 하락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그는 고객들이 “지난주 증시 하락으로 주식 익스포저가 충분이 줄었는지?”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 그는 기관 규모의 풋 수요와 헤지 수요가 변동성 매도 전략을 넘어섰으며, 즉, 큰 투자자들이 주식의 추가 하락에 서둘러 대비하고 있는 신호라고 말했다.
- 주식 변동성 지수(VIX)는 지난주 20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며 올해 평균을 넘어선 상태로 있다.

VIX Index Remains Above Average Levels Hedging demand outweighs volatility selling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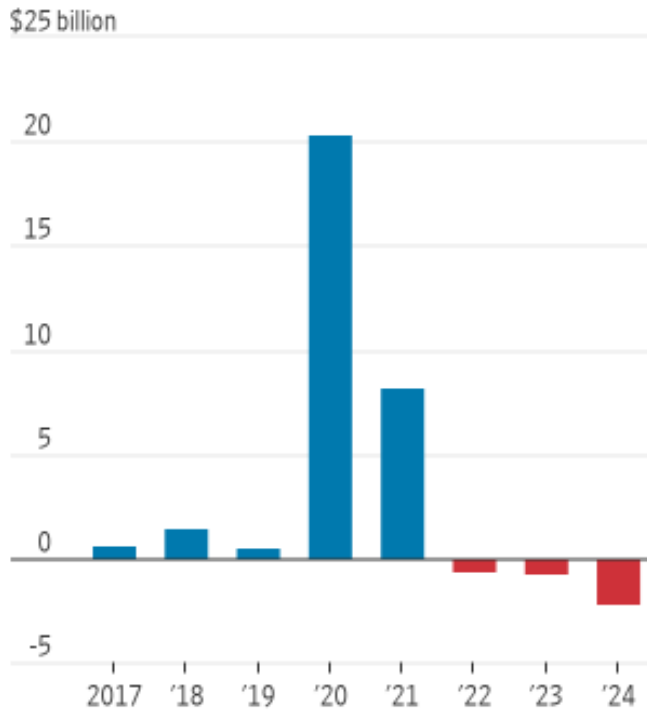
WSJ: Cathie Wood's Popular ARK Funds Are Sinking Fast

캐시 우드의 인기 ARK 펀드 빠르게 감소

- 팬데믹 때 파괴적인 기술주 종목인 테슬라, 줌, 로쿠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 인기를 끌었던 캐시 우드의 ARK 펀드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 캐시 우드의 6개 ETF 펀드에서 올해 22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이 ETF들의 순자산은 2021년 초에 5백90억달러로 최대 규모였는데 최근 4개월도 안 돼 30%가 줄어든 1백11억달러로 나타났다.

- 올해 인공지능과 중국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S&P 500은 올해 5% 상승했지만 ARK 펀드, 특히 ARK Innovation 펀드는 19% 하락했다. 특히 그는 일부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 테슬라와 Roku, Unity Software가 크게 하락했다.

Net flows, actively managed ARK ETFs



Note: 2024 data is through April 19.

Source: FactSet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Is Shedding Its Mideast Fear Premium Too Fast

오일 시장에서 '중동 리스크' 너무 빠르게 사라진다

- 석유 시장에서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한때, 중동 리스크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 예측됐었다.
-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 공격 이후에도 유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난 수년간 양국의 긴장은 오일 시장을 불안케 했으며 직접적인 갈등에 크게 우려돼기도 했었다.
- 브렌트유는 현재 87불로 회복했다.
- 한편, 유가 하락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체면을 살리기 위한 제한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석유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Bloomberg: The electric car revolution is on track, says IEA 국제에너지기구, “전기차 혁명 진행 중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전차 자동차 판매가 20% 이상 증가한 1천7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의 수요가 견인하고 있다는 것.
-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이 기관은 향후 10년간 전기자동차의 치솟는 수요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성하고 기름 사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 기관은 또한 오는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반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5대 중의 1대 비중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기관의 전기차 기준은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다.

CNN Business 기사

[인공지능]

WSJ: AI Developers Agree to New Safety Measures to Fight Child Exploitation

AI 개발자들, 아동 성착취물 막기 위한 안전 조치에 동의

- 화요일 오픈 AI, Meta Platforms, 그리고 Google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금하는 한편 현 대응 수단의 결함을 막기 위해, 새로운 안전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범죄가 늘어났다.
- 아동 안전 단체 Thorn과 비영리 단체 All Tech Is Human에 따르면, 기업들은 아동들이 더 피해를 보기 전에 해당 범죄에 사용된 콘텐츠 제작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연합을 구성했다.
- Thorn과 여러 AI 기업은 생성형 AI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원칙 중 하나는 AI 연구소에서 아동 성과 관련된 콘텐츠 및 데이터 세트를 삭제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GM Raises Profit Outlook for 2024 After Strong First-Quarter Earnings

GM, 2024년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1분기 판매 호조

-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수익 전망을 높였다. 이는 해당 기업이 로보택시와 같은 미래지향적 제품에 투자를 줄이고, 가스 구동 트럭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높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이다.
- 화요일에 제너럴 모터스는 자사의 최대 수익원인 픽업트럭의 미국 내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익이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GM의 강세는 중국에서의 손실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약세를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 당초 GM은 올해 전망으로 수익을 견인할 강한 가격 정책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딜러들이 판매할 자동차들이 많았기 때문. 하지만, GM의 최고 재무 책임자 Paul Jacobson은 “자동차 쇼핑객들이 계속 소비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WSJ 기사

Bloomberg: PepsiCo Boosted by International Growth as US Sales Drop

PepsiCo, 미국 매출 감소에도 해외 성장에 힘입어 실적 향상

- 펩시코가 북미에서의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견고한 수요 덕분에 예상보다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 Mountain Dew와 Frito-Lay chips의 소유주인 펩시코는 1분기 순이익이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2.3%를 상회한 수치이다.
- 작년 펩시코 전체 순익 중 40%를 차지했던 해외 사업 매출은 9% 증가했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의 신흥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영국에서의 매출도 한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CNBC: JetBlue shares tumble 13% after airline lowers 2024 revenue outlook

JetBlue, 2024년 매출 전망 하향 조정 후 주가 13% 하락

- 화요일 제트블루 항공의 주가가 14% 폭락했다. 이는 항공사가 2024년 수익 전망을 낮춘 후의 일이다.
- 해당 항공사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LSEG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측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 제트블루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정리하고, 안정된 수요 및 매출이 높은 노선에 집중하는 등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지난달에 반독점법과 관련된 제재로, Spirit Airlines와의 합병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CNBC 기사

고개 드는 美 기준금리 인상 전망...옵션시장서 "20% 확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2년물 美 국채 금리 최근 5% 찍어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을 넘어 인상을 예상하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자산관리업체 컬럼비아스레드니들 투자의 에드 알후사이니 전략가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1일물 금리(SOFR) 관련 옵션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20%가량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의 글로벌정책 및 자산 배분 부문장 벤슨 더럼은 자체 분석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25% 정도로 봤고, PGIM은 옵션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해당 확률을 29%로 예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